



눈 덮인 한라산 은은한 매화향기 늦겨울 정취로 추억쌓기



제주 핫플레이스 (62) 늦겨울 산책

백록담·어리목·윗세오름·사라오름
다양한 코스별 탐방하며 눈꽃 감상
겨울에 핀 매화... 벌써 봄 기운 풀풀
도심 속 공원 한라수목원서 활력 충전

겨울의 막바지, 눈 덮인 겨울산은 겨울왕국의 매력
을 드러내고 도내 곳곳에서 겨울 꽃향기가 은은
하게 퍼진다. 가까이에서는 도심 속 공원을 거닐
며 봄을 앞둔 늦겨울 추억을 쌓고, 정취를 만끽해
보는 건 어떨까.

늦겨울 산책지로 제주관광공사가 제공하는 '눈
치지 말아야 할 제주 관광 10선'을 참고하면 좋을
듯 하다.

▶겨울왕국·은빛 보석산 그 자체=2월부터 한라
산 탐방예약제(성판악·관음사 코스)가 시범 실시
되면서 지난 첫 주말과 휴일 예약 취소 없이 나타
나지 않는 이른바 '노쇼(No-Show)' 사태가 발
생했지만 주말 겨울산을 즐기 위한 탐방객들의
예약은 이어지고 있다.

겨울 한라산은 겨울왕국, 은빛 보석산 그 자체
다. 제주관광공사는 풍부한 경험으로 등반에 자신
있다면 백록담코스를, 조심스럽다면 사라오름이나
윗세오름을 골라도 좋다고 추천한다. 초보자는 무
리하기보다 어리목에서 30분 거리 어승생약부터
도전하고, 몸이 마음처럼 따르지 않는다면 차로 오
르는 1100고지 휴게소에서의 눈꽃감상도 좋다.

겨울 산행은 안전을 위해 기본 장비를 꼭 챙기고,
현지상황과 통제정보는 CCTV와 한라산국립공원
홈페이지를 통해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.

한라산 탐방예약제에 따라 등반이 허용되는 하
루 탐방 인원수는 성판악 1000명, 관음사 500명이
다. 단체는 1인이 10명까지만 예약할 수 있다.

예약은 당일 입산 가능 시간 전까지 한라산 탐
방로 예약시스템(<http://visithalla.jeju.go.kr>)
과 전화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.

▶곳곳 매화축제... 한라수목원서 여유를-꽃 향
기를 타고오는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매화축제
도 곳곳에서 열린다. 제주관광공사는 "가장 먼저
봄을 가져오겠다는 듯,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제
길을 걷는 매화는 훈풍 먼저 일렁이는 서귀포에서
부터 소식을 전해온다"면서 "곳에 따라 개화 시기
는 제각각 다를지라도 매화가 전하는 매력만은 장
소불문 차고 넘친다"고 밝혔다.

제주시에서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이 '도심
속 공원' 한라수목원을 산책하며 막바지 겨울을
즐겨보는 건 어떨까. 여유로운 산책을 통해 휴식
을 취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 충
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

눈 덮인 한라산과 벌써부터 꽃망울을 터트리는 매화 등 제주 곳곳에서
는 늦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. 사진-한리일보DB

제주바다와 문학 (40) 양전형 시 '탐동 민들레'



제주학 아카이브에 담긴 1985년 강만보 촬영 탐동 바닷(해산물)잡이. 양전형 시인은 그
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탐동의 추억을 시로 풀어냈다.

"갈 곳 잃은 이들, 찾은 이들 탐동으로"

탐동 매립으로 원풍경 잃어
매워진 삶에도 읊트는 생명
발뺏쳐 피어난 들꽃의 위로

1985년 촬영된 한 장의 흑백사진
이 있다. 1987년 7월 탐동 매립이
시작되기 전의 풍경이다. 탐바리
로 불렸던 그곳엔 400미터가 넘
는 해안가에 검은 조약돌인 먹돌
이 깔려있었다. 도심 바다는 기꺼
이 해산물을 내줬다. 아이와 어른
들이 돌틈을 헤집으며 보말(고
등) 따위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
인다.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제
주사회에서 탐동 매립 반대 운동
이 벌어졌지만 끝내 시멘트와 아
스팔트가 깔려 그같은 바다 풍경
이 사라진지 오래다.

근래 제주어 시집으로 이름을
알리고 있는 양전형 시인은 그 이
전에 발표한 작품집에서 탐동에
얽힌 추억을 노래했다. '길에 사
는 민들레' (2001)에 실린 시편으
로 비록 옛 모습을 잃었지만 그리
운 탐동에서 위안을 얻는 시적 화
자가 등장한다.

'바다가 뭐하고 있나 보려고/
탐동에 가 보면/ 바다는/ 내가
뭐하고 있나 보려고/ 탐동으로
달려오고 있더라' ('탐동에 가면'
전문)는 시에서 알 수 있듯 탐동
은 언제나 바다가 우릴 환영해주
는 곳이다. '탐동 민들레'에선
'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탐동으
로 가고/ 갈 곳을 찾은 사람들도

탐동으로 간다'고 했다.

'문명이라는 칼날에 고향 반토
막을 잃어버린 가문둥'처럼 탐동
을 지키려했던 이들도 한순간에
바다를 잃었다. 매워진 바다에서
도 삶은 이어진다. '상환기일이
지난 목숨일지언정/ 어항 속 고
기들은 물질을 계속하고/ 알슬리
나운 부나방처럼 마른 언어들이/
광장 시멘트 바닥에서 날갯짓을
계속한다' ('탐동 민들레'). 민들
레도 어렵사리 발 뺏쳐 피어나
'이곳 저곳 배죽이 고개' 든 채
이슈토록 탐동을 지켜본다. 탐동
에서 서쪽으로 추락해 사라진 붉
은 핏방이 해가 내일 다시 동쪽으
로 살아나듯 말이다.

탐동 매립 10년 후 쯤에 쓰여
진 그의 시들엔 당시 격렬했던 싸
움의 흔적은 드러나진 않지만 슬
픔은 남아있다. '탐동 가로등' 불
빛이 꺼질 줄 모르듯 시적 화자는
그리움에 겨워 새벽이 오기 전에
바다에 들고만 싶다.

꼭 10년 뒤에 묶인 그의 시집
에도 탐동이 어른거린다. '동사형
그리움' (2011)에 담긴 '실직한
날'과 '실직 후 일년' 속 탐동이
다. 고개 숙인 채 밖으로 나올 생
각을 앓는 화자에게 탐동은 어둠
을 비집고 다가오는 어명으로 새
날을 예고한다. 탐동공원의 들꽃
전문)는 시에서 알 수 있듯 탐동
은 언제나 바다가 우릴 환영해주
는 곳이다. '탐동 민들레'에선
'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탐동으
로 가고/ 갈 곳을 찾은 사람들도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축
CONGRATULATIONS
취 임
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회장



현 치 남
(본회 역대회장)

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취임을
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
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서귀북초등학교 제14회 동창일동

축
CONGRATULATIONS
수 상
법무부장관표창



김 귀 네
(본회 역대회장)

2019년 소년보호유공 법무부장관표창 수상을
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
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애월읍청소년지도협의회
회 장 이 상 철 외 지도위원일동

축
CONGRATULATIONS
당 선
**MG우정 (조천·김녕)
새마을금고 제18대 이사장**



고 인 구

우정(조천·김녕)새마을금고 제18대 이사장
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
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구좌해병전우회
회 장 한 명 수 외 회원일동

축
CONGRATULATIONS
입 단
프로야구 한화이글스



임 중 찬
(부: 임훈택 · 모: 김명숙)
(신광초, 청주중, 북일고)

2020년 신인드래프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
입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
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평택임씨 대봉공파 증문·대표 문중회
회원 일동